

에로영화 훔쳐보기

A large graphic of the KOFIC logo, consisting of a solid blue square on the left and a blue rectangle on the right containing the white text 'KOFIC'. The blue rectangle has a subtle pattern of overlapping circles in various shades of blue.

KOFIC

에로영화 훔쳐보기

KOFIC

에로영화 훑쳐보기

- ‘에로’와 ‘19금’ 사이에서, 한국 에로영화 변천사

책임연구 : 주 성 철 (<씨네21> 기자)

발행인 김의석

발행일 2013년 11월 11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 영화진흥위원회, 2013

에로영화 훔쳐보기

- '에로'와 '19금' 사이에서, 한국 에로영화 변천사 -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주 성 철 / <씨네21> 기자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에로영화의 화려한 귀환 / 2

03

에로영화 전성시대 / 5

04

에로영화의 멸종? 새로운 에로의 시작 / 8

05

‘에로의 거장’, 내 갈 길을 간다
(〈아티스트 봉만대〉 봉만대 감독) / 11

1. 들어가는 글

1970, 80년대 한국 에로영화는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보냈다. <애마부인>과 <변강쇠>, <산딸기> 등 내로라하는 에로영화들이 이때 만들어졌고, 관객의 큰 사랑을 받았다. ‘성애영화’, ‘성인영화’,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들 모두 ‘찐한’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후 에로영화는 80년대 VCR의 보급과 함께 팽창한 비디오산업에서 시장을 이끄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다면 IPTV와 온라인 VOD가 VHS를 대신해 부가관권시장을 뚫은 지금의 에로영화 현황은 어떠할까? 얼핏 보면 2013년 오늘, 한국의 에로영화는 그 명맥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에로’의 기운을 담뿍 담은 ‘19금’ 영화들은 여전히 시장 안에서 뜨겁다. 에로와 19금 사이에서, 한국 에로영화의 변화 과정을 쫓았다.

“난 아직도 이쪽 분야(에로)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봐.” 올해 송해성 감독에 의해 영화화된 천명관 작가의 <고령화가족>에서 주인공인 퇴물 감독 오인모(박해일)는 거의 백수로 지내던 중 에로영화 연출을 제안 받는다. 영화배급사에서 일하는 한 대학 선배가 연결시켜 준 정체불명의 사채업자 박 사장(김해곤)이 영화 제작에 뜻을 두고 적당한 감독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박 사장은 느닷없이 ‘빨간 마누라’라 쓰여 있는 시나리오를 던져 주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오 감독이 다른 건 몰라도 ‘떡 신’은 간지 나게 찍는다고 해서 만나 보고 싶었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에로영화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줄줄 늘어놓는다. “에로영화라는 게 뭐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한마디로 남자 놈들 풀리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냐. 요즘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비디오시장이 완전히 죽었다지만,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라며 여전한 잠재력을 지닌 에로영화 시장에 대한 열변을 토한다.

<고령화가족>에서 박 사장의 허세는 오 감독을 유혹하기 위한 감언이설처럼 보이지만, 최근 IPTV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이 재편되고 있는 성인영화 시장의 구도를 보고 있으면 그의 전망이 그리 틀린 것 같지만은 않다. 아니, 어쩌면 그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격으로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죽어버린 에로영화 시장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그로서도, 언젠가 만들어질 <빨간 마누라>를 극장에 내걸어 대규모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가 얘기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란 부가관권시장의 새로운 영토로 떠오른 IPTV시장이 아닐까?

2. 에로영화의 화려한 귀환

에로영화가 귀환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개봉한 '19금 영화' <아티스트 봉만대>는 극장 개봉 1주일 뒤 IPTV 서비스를 시작했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영화 다운로드 순위에서 여러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을 제치고 무려 2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네이버 다운로드 순위에서 오른 19금 영화로는 <아티스트 봉만대>와 달리 극장 개봉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한 김기덕 감독의 <피비우스>가 7위에 기록돼 있고, <아티스트 봉만대> 역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10위권 안에 자리했다. <피비우스>는 모자(母子)간 성관계 묘사와 성기를 자르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품이며, <아티스트 봉만대>는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에로영화 촬영 현장을 리얼하고 코믹하게 그려 낸 작품이다. 배급을 맡은 NEW에서 "미개봉 지역 관객들을 비롯해 극장에서 관람하기 어려운 관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8일 정오부터 IPTV 온라인 동시개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힌 <피비우스>처럼, 극장과 동시상영일 경우 다른 영화들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비싼 1만 원의 다운로드 가격이 책정됨에도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말하자면 와이드 릴리즈 문화가 정착한 극장가에서 <피비우스>와 <아티스트 봉만대>는 '극장 개봉'과 'IPTV 혹은 다운로드 개봉'의 관계가 역전됐다고 할 수 있다.

앞서 2010년 개봉한 <방자전>은 IPTV에서만 40만 건에 가까운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배우 김혜선의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완벽한 파트너>(2011) 또한 IPTV를 통해 극장 수입의 3~4배가량을 더 벌어들이며 손실을 면했다. 객현화와 하나경의 노출로 화제를 모은 <전망 좋은 집>(2012)도 개봉 1주일 만에 극장 간판을 내렸지만 VOD 서비스로만 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재개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들 영화의 경우 IPTV나 합법 다운로드를 통한 수익이 극장 개봉 수익을 단숨에 넘어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대해 <아티스트 봉만대>의 봉만대 감독은 "IPTV는 '풍당풍당 상영'이 없는 민주적 영화 공간"이라 말한다. 과거 전적으로 극장 개봉에만 의지하던 시절, 이와 같은 소규모 영화들은 극장 마음대로 회차를 건너뛰어 상영하는 풍당풍당 상영과 개봉 후 불과 며칠 만에 간판을 내려야 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하지만 IPTV나 합법 다운로드를 통한 수익 창출은 새로운 희망의 영토로 느껴진다. 말하자면 과거 비디오 대여시장에서 에로영화의 점유율이 막강했던 것처럼 디지털 온라인시장에서 성인영화에 대한 예측 가능한 수요가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폐막식에서 우수 한국독립영화에 수여하는 'LG 하이엔텍 어워드'를 수상한 황철민 감독의 <죽지않아> 또한 다운로드 순위 9위에 기록돼 있다. 시골에 사는 손자(차래형)와 할아버지(이봉규)가 함께 한 여자(한은비)에게 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코미디다. 단순한 에로영화로 분류하기에는 다큐멘터리 <옥천 전투>(2001)를 비롯해 <프락

치>(2004),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2009) 등을 만든 이른바 ‘사회파’ 감독 황철민의 작품 연장에 있는 영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죽지않아>의 다운로드 흥행은 인터넷상에서 ‘80대 노인 유혹 장면 후끈’, ‘80대 노인과 파격 정사 신 어땠나 보니’, ‘한은비, 아찔한 비키니 몸매로 볼륨감 뽐내’라는 식의 자극적 기사들에 힘입은 바 크다.

또 봉만대 감독과 마찬가지로 ‘에로비디오 출신 감독’으로 분류되는 공자관 감독의 <젊은 엄마>(2013)와 한상희 감독의 <일탈여행: 프라이빗 아일랜드>(2013) 또한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말하자면 20위권 안에 1/4에 해당하는 5편의 19금 영화가 포진해 있는 것이다. 역시 에로영화로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청소년 관람불가’이자 <아티스트 봉만대>보다 일주일 앞서 개봉한 앤 폰테인 감독의 <투 마더스>도 IPTV와 최초 다운로드 서비스 이후 현재까지 오히려 순위가 더 높아지며 다운로드 순위 4위를 달리고 있다. 극장에서 100만 관객 동원은 배급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VOD 100만 시청 혹은 웹하드 100만 다운로드의 시공간을 초월한 시장을 제공한다. 제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익배분을 역시 극장 유통보다 훨씬 유리하다.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런 포털사이트의 영화 다운로드 순위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디지털 온라인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VOD(주문형 비디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매주 발표하는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에서의 영화 VOD 이용 TOP 10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영화들이 아닌 <월드워Z> <더 테러 라이브> <감시자들> <미스터 고> 등 ‘홀드백이 이제 막 풀린’ 기존의 극장가 흥행 영화들이 전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디지털 온라인시장에서 ‘가정용 TV 순위’와 ‘컴퓨터 모니터 순위’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후자의 수익이 앞서 언급한 영화들의 극장 개봉 수익을 3, 4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몇 년간 ‘핑크빛’ 비전으로만 존재하던) 디지털 온라인시장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된 매체 환경을 오래전에 내다본 대표적인 회사는 바로 ‘조이엔터테인먼트그룹’이다. 과거 코랄픽처스에서 영화 수입 업무를 담당하던 최광래 대표가 ‘조이엔키노’로 독립한 것이 그 첫 시작이다. “코랄픽처스에 있을 때 수입한 소노 시온의 <기묘한 서커스>가 상영관을 잡지 못해 서성대다가 스폰지하우스에서 일주일간 부분 상영하고 그쳤던 기억”이 그를 독립하게 만들었고, 드디어 지난 2007년 <걸스 라이프>를 인터넷으로 개봉했다. 이는 국내 수입된 영화가 극장이 아닌 온라인 상영관에서 바로 개봉한 최초의 사례였다. “프린트 한 벌 값을 상쇄할 1,500명 이상의 관객 확보도 쉽지 않던” 시절에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작은 영화들이 활로를 찾을 것이라 봤다”고 최광래 대표는 말한다. 이후 <참을 수 없는 금단의 정사> <주리의 스와핑 다이어리> <G컵 수사관 란> 등 일본의 핑크 무비나 로망 포르노를 잇달아 수입하며 성인영화를 위한 틈새시장을 공략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사업을 다각화해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1995) 등 판권 계약이 만료된 과거 영화들을 재계약해 꾸준히 수입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재개봉 열풍에 주목하고 있다. 이 또한 극장가는 물론 부가관권시장에서 좋은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이처럼 성인영화 시장은 전체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까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에로영화 전성시대

과거 에로영화는 한국 영화산업 안에서 액션이나 공포영화와 비교해 언제나 꾸준하게 인기를 누린 장르였다. 정인엽 감독, 안소영 주연 <애마부인>(1982)과 엄종선 감독, 이대근 주연의 <변강쇠>(1986)로 대표되는 선 굵은 계보는 그 자체로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기도 하다. 더불어 두 영화가 지닌 상징성은 이들 에로영화가 사극과 현대물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흥행을 거뒀음을 보여 준다. 당연히 그 인기에 편승한 다른 시리즈물들도 제작됐는데, 사극으로는 역시 안소영이 주연을 맡았던 김수형 감독의 <산딸기>(1982~) 시리즈가 3편까지 만들어졌고, 현대물로는 박호태 감독의 <빨간 앵두>(1982~) 시리즈가 10년 넘게 계속되며 무려 8편까지(모두 박호태 연출) 만들어졌다. 이들 시리즈는 <애마부인>과 같은 해인 1982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 당시 에로영화가 극장에서 보여 준 파급력과 대중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은 당연히 흥행 결과로 입증된다. <애마부인>은 그해 한국영화 흥행1위였고, 1985년에는 간발의 차이로 배창호 감독의 <깊고 푸른 밤>이 이장호 감독의 <어우동>을 누르고 흥행 1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어우동>은 추석 시즌에 맞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다이 하드>보다 더 큰 흥행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후 1988년과 1989년은 유진선 감독의 <매춘>과 김호선 감독의 <서울 무지개>가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극장 개봉영화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이들 에로영화는 종종 ‘성애영화’ 혹은 ‘성인영화’라 불리기도 했는데, 그 시작은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1974)으로부터 촉발된 1970년대의 이른바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라 할 수 있다. 이후 김호선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1975)와 <여자들만 사는 거리>(1976), 변장호 감독의 <0양의 아파트>(1978)와 <꽃순이를 아시나요>(1978) 등이 흥행에 잇달아 성공하며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별들의 고향>과 <영자의 전성시대> 역시 그해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산업화 사회에서 평범한 여성이 순결을 잃고 호스티스로 전락하는 과정을 다루며, 당시로서는 새롭게 등장한 청년문화의 한 지류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애마부인>을 기점으로 등장한 일련의 에로영화들은 이전의 청년문화의 양상과는 다른, 보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정사 신 그 자체가 내러티브 안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일종의 ‘소프트 포르노그래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훙친 사과가 맛이 있다>(1984)와 <서울에서 마지막 탕고>(1985)의 오수비, <어울링 더울링>(1986)과 <가루지기>(1988)의 김문희, <물레방아>(1986)와 <떡>(1988)의 선우일란 등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향수 어린 이름들이다. 또한 이것은 TV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TV드라마와 극장 개봉영화를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더 분화하는(노출과 정사 신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양상으로 나아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에로영화들은 필연적으로 검열과 맞물려 ‘예술(藝術)이나 외설(猥褻)이나’ 하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령 1988년 88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동아일보>에서는 ‘국산영화 포르노화 너무한다’는 제목으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제가 완화된 기회를 틈타 국산영화의 성적 표현이 대담하다 못해 포르노영화에 가깝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경향에 맞춰 연기자들 중에서도 에로물을 전담하는 배우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이대근과 마홍식을 ‘에로영화를 전담’하는 단골 배우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이대근과 마홍식은 강수연과 더불어 그해 출연 작품 편수가 가장 많은 세 명의 영화배우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당시에는 에로영화가 연간 제작편수로 환산하더라도 가장 많이 제작되는 한국영화였다는 점이다. 마홍식은 바로 그 시기 ‘예술과 외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영실 감독의 <반노>(1982)에 출연했다. 1969년에 발표된 염재만의 원작 소설 『반노』는 1996년 장정일의 『거짓말』 보다 앞서 최초로 법정에 회부된 문학 작품이었다. 당시 『반노』는 3선 개헌을 앞둔 박정희 대통령이 퇴폐 척결을 내세우던 시기여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 ‘음란문서 제조’ 혐의로 처벌 대상에 올랐다.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의 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작가가 항소해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얻어 냈다.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원작처럼 영화 <반노>도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완성됐는데, 이 역시 영화 속 주인공 진두(마홍식)와 홍아(원미경)의 동물적인 성생활을 대담하게 묘사하며 ‘예술과 외설’ 논란에 휩싸인 첫 번째 한국영화로 기록됐다. 아마도 ‘예술’로 인정받은 작품들은 칸영화제에 초청됐던 이두용 감독의 <여인잔혹사 물레야 물레야>(1983), 베니스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강수연)을 수상한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1986) 등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당시 한국 에로영화는 작품편수로 보나, 문화사회적 주목도에 있어서나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결코 ‘음지’의 영화가 아니었다. 1994년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최민수와 김혜수가 목소리 더빙으로 참여한 성인 애니메이션 <블루 시걸>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시로선 드물게 컴퓨터그래픽을 가미하여, 역시 당시로선 대작 규모였던 순 제작비 15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서울 정도 600년 기념 타임캡슐 수상 작품’이라는 요란한 타이틀도 지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블루 시걸>은 국산 애니메이션의 모든 단점을 아로새긴 작품이 되고 말았지만, 당시 성인물의 너른 스펙트럼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VCR 문화가 확산되면서 에로영화 시장은 급변하게 된다. 거의 모든 가정이 비디오 플레이어를 갖추게 되면서 에로비디오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고, 동시에 극장에서 에로영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1989년 할리우드영화의 직배가 시작된 것도 이를 부추겼는데, 홍콩영화 <육보단>(1992)과 김문희 주연의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1993)는 그 황혼기를 장식한 작품들이다. 그렇게 에로비디오는 1990년대 들어 전국 3만여 개에 육박하는 비디오 대여점을 중심으로 전체 비디오시장의 10% 가까이 차지할 만큼 급속도로 팽창했다. 1990년대 중반 <젓소부인 바람났네>와 <정사수표> 시리즈로 대표되는 ‘한시네마타운’과 ‘유호프로덕션’이 이 시기를 양분했는데, 이후 1990년대 말 등장한 <자유학원> 시리즈의 ‘씨네프로’와 ‘클릭 엔터테인먼트’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저런 ‘부인’ 류의 작품들이 ‘미소녀’ 시리즈로 대체되며 트렌드 자체가 교체된 것이다. 이 시기 극장개봉 영화들의 제목을 패러디해 <반지하의 제왕> <목표는 형

부다> <박하사랑> 등의 영화들이 화제에 오르며 에로비디오 시장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이후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2003)을 만들게 되는 <아티스트 봉만대>의 봉만대 감독과 <색화동>(2006)을 만든 공자관 감독이 바로 이 시기 등장한 감독들이다. <아티스트 봉만대>의 배우 성은도 당시 <자유학원> 시리즈에서 ‘유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런 에로비디오 프로덕션들의 황금기도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이른바 불법 다운로드 ‘야동’에 처참하게 밀리는 형국에 처하게 된다. 여러 프로덕션들이 차례로 문을 닫고 봉만대 감독이 기획시대에서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을 만든 그때가 상징적인 일대 전환의 시기였다. 그렇게 최근 들어 새로이 디지털 온라인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인터넷의 은밀한 세계는 에로영화와 에로비디오 모두를 잠식했다. 그사이 ‘고급화’를 표방한 이성재, 박현진 주연, 주경중 감독의 <나탈리>(2010)가 에로영화의 3D 개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잦은 정사 신에 음모까지 노출하고 3D 효과를 사실적으로 첨가했지만 전혀 극적인 감흥이 없었다. 제작사 측은 “범람하는 야동의 시대에 3D 에로영화가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의 야한 장면만 추출, 편집한 ‘나탈리 엑기스’ 파일만이 돌아다녔다. 말 그대로 장르와 이슈를 초월한 콘텐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결과라 할 것이다.

4. 에로영화의 멸종? 새로운 에로의 시작

영진위가 2013년 5월 발표한 자료 중 「유료 VOD, 어떻게 소비되나?」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TV 가입자 수는 약 1,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IPTV 이용자가 700만 명, 디지털케이블TV 이용자가 541만 명, 위성방송 이용자가 199만 명가량이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의 VOD 이용 비율은 평균 19.9%이며, 유료 VOD 이용률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IPTV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방송 품질 향상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콘텐츠시장을 활성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적수가 없었던 케이블 업계에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시장 경쟁은 본격화됐다. IPTV 도입 이후 단방향, 실시간 위주의 케이블에서도 VOD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등 타 플랫폼 서비스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료 VOD 영화의 주요 이용자는 IPTV에 가입한 30, 40대 기혼자로서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으며,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계층이기도 하다. 유료 VOD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는 즐거리가 재미있고, 극장 흥행에 성공했으며, 추천인이 많거나, 다소 성인 취향의 작품들이다. 극장에서 상영 우위를 점하기 힘든 성인영화들이 극장보다 유료 VOD시장 같은 부가관권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굳이 에로영화가 아니더라도 <하녀> <후궁: 제왕의 첩> 등 노출 장면이 있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들의 IPTV매출이 높다. 과거 홈비디오 시절 비디오용 에로영화들이 쏟아졌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그런데 이들 영화 중 대다수는 영화 장르를 ‘멜로’나 ‘로맨스’로 표기하고 있다. 현재 영화 장르의 경우 포털사이트들은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의 장르를 따르고 있는데, 영진위는 제작사 혹은 배급사의 홍보 메일을 기준으로 장르를 단순 입력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성인 코드가 분명 진하게 드러남에도 제작사가 멜로나 로맨스 등의 장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이용자가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사용상의 불편함 때문이기도 하고, 분명 일정 정도 흥행성을 갖고 있음에도 ‘에로’ 혹은 ‘19금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들의 이중적인 잣대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장르 카테고리에 그러한 분류가 없다. <아티스트 봉만대>는 코미디, <죽지않아>는 공포/스릴러, <젊은 엄마>는 멜로, <일탈여행: 프라이빗 렌드>는 드라마로 표기돼 있다.

포털 ‘다음’의 경우에는 에로 같은 장르 분류가 없는 대신 ‘성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꽃과 뱀의 정사> <국회의원 아가씨> 등 일본 에로영화는 어디에서건 따로 장르 표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그것은 ‘청소년 관람불가’라는 등급명과 같은 것이나 다름없기에 ‘장르 분류’가 아닌 ‘등급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 대해 봉만대 감독은 “어느 순간 ‘에로’가 ‘사어’(死語)가 됐다”고 지적한다. “에로라는 단어를 꺼려한다기보다 어딘가 ‘옛날 영화’, ‘잘 모르는 영화’ 같은 느낌을 줘서” 그것은 부정적인 이중 잣대이기보다 ‘인지도’의 차이라는 것이다. 과거 에로영화가 활

황이던 시절을 지나 그 장르명 자체가 멸종 위기에 처했으니, 용어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을 거듭하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성인영화’ 혹은 ‘19금 영화’라는 용어의 실효성을 얘기하며 “<아티스트 봉만대>는 에로이기보다 블랙코미디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은교>나 <후궁: 제왕의 첩>도 에로라고 해야 할까?”라고 반문한다.

어쩌면 그것은 ‘19금’ 영화시장의 분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조이엔컨텐츠그룹은 지난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특별전을 갖기도 했던 ‘홍콩 멜로영화의 전설’ 양범 감독의 2004년 <도색>(주연 하리수)을 <하리수 도색>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2일 극장에 내걸었다. 기존의 조이엔컨텐츠 혹은 조이엔키노가 아닌 ‘스크린조이’라는 브랜드로 개봉했는데, 조이엔컨텐츠그룹 관계자는 “수입, 배급 작품들 중에서 보다 예술성이 뛰어난 유명 감독들의 작품을 따로 스크린조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하리수 도색>이 그 첫 작품”이라 말했다. 말하자면 디지털 온라인시장의 확산 속에서 분명히 ‘차별화된 수요’가 존재한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레 기존 메이저 영화사들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에로영화의 제작편수가 갑작스레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 ‘전체 관람가’ 혹은 ‘코미디’ 장르 편향으로 기획되던 분위기에서 성인 취향의 관객들을 향한 적극적인 구매의 기획들이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는 확실한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명필름은 현재 <싱글즈>(2003), <뜨거운 것이 좋아>(2007)를 만든 권철인 감독의 신작 <관능의 법칙>을 제작 중이다. 엄정화, 조민수, 문소리가 출연하는 이 작품은 40대 여성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과감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연히 처음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로 기획됐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관능의 법칙>은 최근 IPTV시장의 대중화를 통한 부가관권 창출에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그로 인해 졸작이나 아류작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그런 변화는 그동안 ‘전체 관람가’ 시장에 경도돼 있던 한국영화들이 새로운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게 만들 것이다. 영화 제작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한다. 최근 촬영을 마친 박범수 감독의 <레드카펫>도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10년차 에로영화 전문 감독(윤계상)과 20년 전 아역스타 출신 여배우(고준희)의 사연 많은 로맨스를 그렸다. 물론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하고 있지만 에로영화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 비중 있고 코믹하게 그려진다.

모든 감독과 배우들이 실명으로 출연하는 <아티스트 봉만대>에서 <남극일기> <헨젤과 그레텔> 등을 연출한 임필성 감독은 인도네시아 톱복에서 에로 공포영화 <해변의 광기>를 촬영 중이다. 그런데 제작자가 돈이 되려면 더 ‘찐한’ 에로 장면이 필요하다는 임 감독과 사사건건 부딪치고, 급기야 ‘에로계의 거장’ 봉만대 감독이 긴급 투입된다. 겉으로는 거장인 양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 그는 떨어진 쌀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다. 그렇게 봉 감독만 투입되면 다 해결될 것 같던 촬영 현장은 여배우들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금 곤욕을 치른다. 갑자기 노출 장면을 찍어야 하는 광현화는 벗지 못하겠다는 몸속을 사리고, 급기야 기획사 대표까지 현장에 찾아와 그를 데리고 가버린다. 이에 평소에 에로 배우의 이미지를 벗고 싶어 했던 성은이 광현화를 대신해 노출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결국 왕년의 에로 배우가 큰 맘 먹고 <해변의 광기>도 구하

고, 에로 감독 봉만대도 촬영 현장의 평화를 가져온다. “니들이 에로를 알아!”라고 일갈하는 영화 속 봉만대 감독의 모습에는 사라진 장르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다. 왕년의 에로영화는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생태계 속에서 멸종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또 다른 모델이 되고 있다. ‘19금 영화’ 시장이 그렇게 꿈틀대고 있다.

5. ‘에로의 거장’, 내 갈 길을 간다

<아티스트 봉만대>가 IPTV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당신에 대한 새로운 팬층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사실 감독 입장에서 처음부터 IPTV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는 않는다. 그건 제작자의 몫이다. 나로서는 <아티스트 봉만대>를 ‘자연 분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상영관이 더 많으면 좋을 텐데’하고 생각할 뿐이다.(웃음) 제작사인 골든타이드픽처스가 한국에서 핑크 무비 혹은 로망 포르노의 계보를 세우려는 꿈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건 알고 있다. 그래서 나 역시 흔쾌히 연출했고 영화가 극장에서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거다. 물론 이후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가능성을 주목하게 된다. <아티스트 봉만대>는 그 가능성을 제대로 보게 해 준 작품이다.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2003)은 디지털 온라인시장의 수익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징이 된 작품이기도 하다. 케이블TV에서 만든 <동상이몽>(2005)과 <TV방자전>(2011) 또한 새로운 시도였다.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은 지금도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한다. <동상이몽>도 그 작품을 기획한 누군가가 승진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고, <TV방자전>도 어딘가에 팔렸다면 보너스가 나왔다.(웃음) 나로서는 하고 싶은 작품을 한 것인데 그런 식의 새로운 수익이 난다면 기쁜 일 아닌가. <TV방자전>에 춘향으로 나온 이은우가 <퇴비우스>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뻐다. 그런 식으로 배우진 스타프들이건 계속 새로운 일을 더 찾게 된다는 게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테고.

디지털 온라인시장을 통한 성인영화의 활성화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나?

IPTV용으로 제작되는 19금 영화의 등장은 20년 전과 비슷하다고 본다. VHS시스템 보급으로 안방극장 시대가 열렸던 시기에도 이를 충족시킬 콘텐츠가 필요했고, 그 수요가 비디오용 영화 제작으로 이어졌다. 최근 IPTV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플랫폼이 VHS에서 IPTV로, 스마트폰으로 옮겨 간 것이다. 나로서는 ‘에로영화의 거장’이라는 말을 듣던 내가 직무 유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웃음)

<덧>이라는 3D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이 시장에서 3D 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덧>은 편집까지 다 끝냈지만 아직 미개봉으로 남아 있다. 사실 애초에는 3D 기획이 아니었는데 여러모로 이후에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낸 것이다. 하지만 <나탈리>도 그렇듯 3D는 장르와 무관하게 완전히 다른 개념의 영화다. 극장에서 함께 보는 영화, 내 손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영화가 다르듯이 함부로 손댈 영역이 아니다. 3D 에로가 시장성이 있다면 이미 포르노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에로영화는 이전부터 저예산 시장이었다.

★ 이 글은 영화 <아티스트 봉만대>의 봉만대 감독 인터뷰 내용이다.

<후궁: 제왕의 첩>이나 <은교>도 IPTV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성인물들이다. 다만 장르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해진다. 당신이 정의하는 에로영화란?

에로영화는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성 수용자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최근 안방에서 소비되는 콘텐츠는 여성들의 파워가 세다. <하녀> <후궁: 제왕의 첩> 같은 작품들을 보는 사람들 중 여성들의 비중이 더 크다고 들었다. 그래서 무작정 야하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납득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활성화라는 측면은 바로 그 부분에서 판도가 갈릴 것이다. <후궁: 제왕의 첩>의 경우 궁중 에로 사극을 찍어 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속된 말로 <은교>를 보면서 많이 꼰했다.(웃음) 원작이 분명하게 있는 영화인데도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걸 에로영화라고 해야 하나, 그럼 <로리타>도 에로영화인가?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봤다. 마지막 훑쳐보기의 시선을 보고 있으면 에로영화의 관음증과 무척 비슷하다. 그런데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다. 나름 규정을 해 보자면, 멜로와 에로와 비슷해 보이지만 에로가 빠져도 멜로가 서 있으면 멜로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에로다. 어느 한쪽을 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르에 대한 규정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또한 최초로 공개하는 나만의 분류법이 있다. 무삭제판이 보고 싶으면 에로영화고, 감독판이 보고 싶으면 멜로영화다.(웃음)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이후 10년이 지났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왔다고 생각한다.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2012)는 사랑 없는 에로를 시도해 봤다. <아티스트 봉만대>의 경우는 에로이기보다 블랙코미디다. 영화 속 영화에서 분위기 좋게 ‘꿀릴 만하면’ 톱을 든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죽인다.(웃음) 소동이 있는 휴먼드라마다. 개인적으로는 매번 그런 노림수를 갖고 연출해 왔고, 마라토너의 심정으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싶다.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 봉만대는 여전히 봉만대이고 극장에서 만나건, TV로 만나건, 모니터로 만나건, 스마트폰으로 만나건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바뀌지 않았지만 대중과 그 플랫폼만 바뀌었다. 그 모든 디바이스는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거다.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 만나더라도 다 내 영화다.(웃음) 나 역시 어떤 순간에도 관객과 간절히 소통하고 싶은 ‘영화감독’이다.